

빅리그 출신 '빌로우' KIA 4강 이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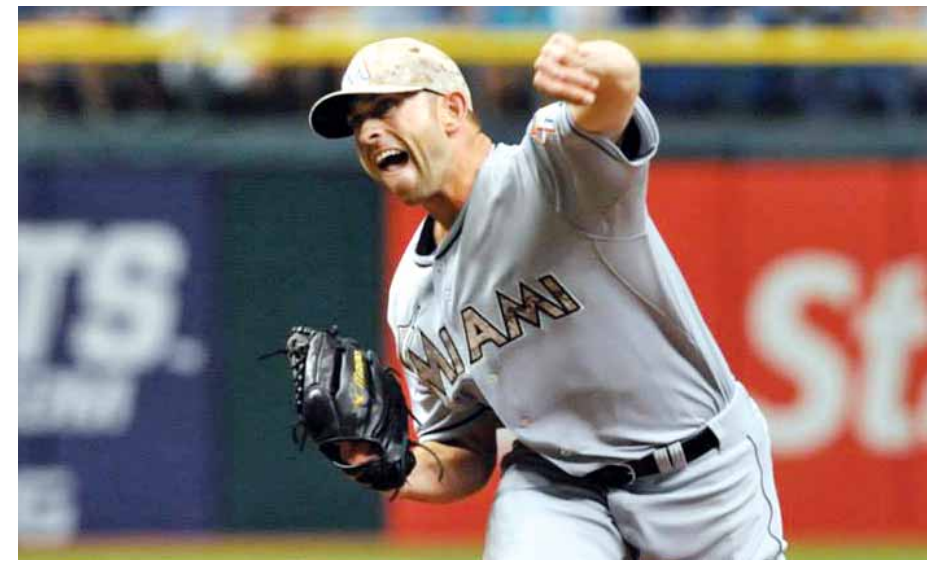
메이저리거 3시즌 경험한 좌완 정통과 선발·중간 모두 가능... 호랑이 마운드 '숨통'

KIA 타이거즈가 좌완 용병으로 4강 판도를 바꿀까? KIA가 빅리그 출신의 좌완 듀웨인 빌로우(Duane Below·28·사진)를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낙점했다. 계약 조건은 연봉 30만달러(월 3만달러). 미국 출신의 좌완 정통파인 듀웨인 빌로우는 키 191cm, 체중 93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거에서 3시즌을 보낸 경험이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디트로이트에서 뛰었고, 2013년에는 마이애미에서 활약했다. 메이저 3시즌 동안 43경기에 등판한 듀웨인 빌로우는 4.27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4패를 기록했다. 직구구속은 140km 중후반대로 볼 끝이 묵

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선발과 중간 모두 가능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마무리 부재와 선발진의 부진으로 순위싸움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KIA에게는 듀웨인 빌로우의 합류가 반갑다. 특히 좌완이 귀한 KIA에는 최상의 선택이다. 지난 30일 2군에서 등판을 소화한 양현종이 다음 주 1군 재합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듀웨인 빌로우까지 합류하게 되면 선발진에 두 명의 좌완 투수를 배치하게 된다. 선발진은 윤석민·김진우·소사·양현종·듀웨인 빌로우로 꾸러질 전망이다. 선동열 감독은 "용병 복이 없는 편인데 8

년을 같이 지낸 김평호 코치가 중간 용병은 있다고 하더라. 대체 선수들은 관참은 활약을 해준 편이었다"고 웃으며 "(듀웨인 빌로우는) 임준섭이나 서재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서재응이 빨리 컨디션이 올라와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과 부진으로 틀이 있었던 선발진에 짜임새가 더해지면 선발진들의 부담은 덜할 전망이다. 확실한 선발진이 완성되면 불펜 강화도 가능하다. 임시 선발로 역할을 해준 임준섭이 박경태·심동섭 등과 좌완 불펜진을 구성할 수 있고,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서재응도



불펜으로 이동해 부활을 위한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한편 듀웨인 빌로우는 2일 한국에 도착해

메디컬체크를 받은 후 곧바로 팀에 합류해 한국무대에 도전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④ 덕아웃 말말말

▲역지로 맞춘 것 아니냐고 하시던데요 = 지난 30일 1년 여 만에 1군 복귀전을 치른 심동섭. 포수 이흥구의 사인을 잘못 봐서 직구를 던졌는데 주심이 맞았다면서. 박근영 주심이 역지로 맞춘 것 아니냐고 농담을 하시더라며.
▲자신있게 던져야지 = 선동KIA 열 감독, NC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좌완 박경태와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긴장하는 게 보이더라며.

후배들 순한 야구에 답답한 홍세완 코치 "몸 만들어야겠어"

▲다음 주에는 들어와야지 = 양현종의 1군 합류 시점에 대해 질문을 받은 선동열 감독. 한 차례 더 2군 등판을 하게 한 뒤 바로 합류시키겠다고.
▲(조금 전에)내려왔어요 = 지난 30일 삼성과의 벤치 클리어링에서 주목을 받았던 서재응.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이름이 있더라는 얘기에.
▲너무 자신있어서 그랬네요 = 삼성을

상대로 3.2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던 김진우. 자신감이 넘쳐서 오히려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급하게 승부를 해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다음 경기에서는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돼지가 붙어났어요 = 투수 오준형, 모자에 붙은 스티커의 출처를 묻자 나지완이 붙어났다고.
▲몸 만들어야겠어 = 홍세완 코치, 후배

들이 너무 순하게 야구를 해서 대신 선수로 뛰고 싶은 심정이라며.
▲커트하느라 비뻔했어요 = 올 시즌 1군 첫 타석에서 오승환을 상대한 황정민, 차원이 다른 공이라서 다른 생각 없이 커트만 했다며. 황정민은 높은 직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오승환을 상대로 9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작은 거인' 김선빈 월간 MVP

'작은 거인' 김선빈이 6월 광주기자단이 선정하는 월간 MVP를 받았다. KIA 내야수 김선빈이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 병원이 시상하는 월간 MVP에 선정돼 지난 30일 광주 삼성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김선빈은 지난 6월 한 달 0.329의 타율(79타수 26안타)로 12타점 8득점을



몰렸다. 주전 유격수로도 안정된 수비를 보이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김선빈은 시상금 100만원중 50만원을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루타 메일루타이트(리투아니아)가 지난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평영 100m 결승에서 힘차게 스타트하고 있다. 16살인 메일루타이트는 이날 대회결과 1분04초35로 세계 기록을 갈아 치웠다. /연합뉴스

10대 소녀들의 신나는 질주

2013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경쟁 종목이 치러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팔라우 산 조르디 경기장에 10대 소녀들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회 경쟁 종목 사흘째 경기가 끝난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세계 신기록은 두 차례 나왔다. 두 개 모두 10대 소녀가 해냈다. 먼저 29일 여자 평영 100m 준결승에서 리투아니아의 루타 메일루타이트(16)가 1분04초35로 세계 기록을 갈아 치웠다. 메일루타이트는 결국 30일 열린 결승에서 1분04초42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 수영선수권 사상 리투아니아가 수확한 첫 금메달이다. 1997년 3월생인 메일루타이트도 지난해 런던 올림픽 평영 100m에서도 1분05초47의 기록으로 우승. 리투아

니아 수영에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기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메일루타이트는 이번 바르셀로나 대회 금메달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딴 최연소 여자 수영선수로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두 번째 세계 신기록은 '미국 수영의 미래'인 케이티 레데키(16)가 수립했다. 레데키는 30일 열린 여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5분36초53 만에 레이스를 끝내 2007년 6월 케이티 지글러(미국)가 세운 종전 세계 기록(15분42초54)을 6년여 만에 6초01이나 줄이고 우승했다. 여자 자유형 1500m는 남녀부를 통틀어 톱코스(50m)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세계 기록이 새로

쓰이지 않고 있던 종목이었다. 16세 135일의 레데키는 지난 2005년 대회에서 17세 29일의 나이로 우승한 지글러를 제치고 세계 선수권대회 이 종목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기록도 새로 썼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자유형 800m에서 금메달을 딴 레데키는 이번 바르셀로나 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 우승으로 벌써 2관왕에 올랐다. 일찌감치 '여자 펠프스'로 주목받아온 미시 프랭클린(미국·18)도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프랭클린은 28일 단체전 여자 계영 400m에서 미국의 금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30일 여자 배영 100m 결승에서도 우승했다. 프랭클린은 올림픽 데뷔 무대였던 지난해 런던 대회

에서 여자 배영 200m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는 등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를 차지, 세계수영의 미래를 짊어질 기대주로 떠올랐다. 프랭클린은 올림픽에서의 활약으로 지난해 미국수영 '올해의 선수'로 뽑힌 데 이어 국제수영연맹(FINA) '올해의 여자선수상'도 받았다. 이번 바르셀로나 세계대회에서 사흘동안 여자부 경쟁 개인 종목에서 나온 금메달은 총 6개다. 이 가운데 8월 17일에 만 20세가 되는 여자 접영 100m 챔피언 사라 요스트롬(스웨덴)까지 포함하면 10대 선수들이 가져간 금메달은 무려 다섯 개다. 이들이 출전하는 경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4위에 머문 중국의 예스원(17)도 오는 4일 열린 개인혼영 400m에서 실력을 버리고 있어 10대 소녀들의 돌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 FC 허리 강화 FC 서울 이광진 6개월 임대 영입

광주 FC가 허리 강화를 위해 그라운드외 재간동이 이광진(21)을 영입했다. 광주는 지난 31일 FC 서울의 미드필더 이광진을 6개월간 임대 영입했다고 밝혔다. 두뇌 플레이에 능하고 패스워크가 뛰어난 이광진은 2010년 FC 서울 산하의 동북고를 졸업한 뒤 우선지명을 받은 플레이 메이커다. 2010 아시아 청소년 대표로도 활약했다. 프로데뷔 후 1경기 출장이 그치고 있지만 날카로운 크로스와 안정적인 공·수, 볼 배급 능력 등 '패스축구'를 강조하는 여범규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또 다른 광주발 스타를 꿈꾸고 있다. 이광진은 "그동안 광주 경기를 보면서 팀워크가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아직 어리고 배울 점이 많지만 기회를 준 광주에게 보답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는 루이지뉴와 투시오와의 '브라질 듀오'로 공격력을 극대화한 데 이어 이광진의 영입으로 이적시장 보강을 마치며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나서게 됐다. 현재 1위 경찰과의 승점은 15점. 남은 후반기 18경기에서 역전승에 도전하는 광주는 4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고양을 상대로 대반전을 위한 후반기 스타트를 끊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